

광주 시민사회, 지방분권 실현 힘 보탠다

‘시장과 만남의 장’서 논의 연말까지 공동 토론회 개최 지역 의견 개헌안 반영 총력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시대를 약속한 가운데 광주시민사회도 지방분권 과제의 내년 개헌 관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는 20일 “윤장현 광주시장이 19일 오후 류한호 광주시지방분권협의회 상임대표, 최영태 지방분권현행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 등 지방분권 관련인사 14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시는 재야·시민사회의 시정에 대한 비판·제안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매월 ‘시장과 시민사회와 만남의 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제2차 만남’은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 개헌을 앞두고 시민주도의 능동적이고 내실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민·관 공동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균형발전형 지방분권 현실화를 위한 시민사회 결집 ▲중앙정부와의 소통채널 활성화 대책 마련 ▲광주 시민총회의 전국화 제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 고민 ▲노인일자리 감소 해결책 제시 ▲재정균등분권 촉구 ▲개헌특위 지방분권분야 광주·전남 의견 반영 ▲민간



윤장현(앞줄 왼쪽 네번째) 광주시장이 19일 오후 서구 한 식당에서 열린 ‘제2차 시민사회와 만남의 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지방분권의 제도적 관철을 위한 민·관 공동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차원 자문관 선임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윤장현 시장은 “역사적으로 광주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한국사회를 바꾸는 변화의 주역 역할을 해왔지만 사회적 주체가 되지 못했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전국화 등 지역 정책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취차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

는 만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지역 역량 극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 결과 59.8%가 지방분권형 개헌에 찬성하고 이중 광주·전라 지역 찬성이 66.5%로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여론을 취차하기 위해 시는 그동안 지방분권 관련 시민사회단

체와 3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는 올 말까지 지역 시민사회단체-정치권과 공동 토론회 등을 개최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한 개헌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 의견이 개헌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시내버스 친절·안전 운행 광주시, 매주 금요일 캠페인

광주시는 교통문화연수원, 버스운송사업조합 등 4개 기관과 합동으로 21일부터 시내버스 장등동 차고지에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 및 안전 운행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캠페인은 그동안 운수종사자 민원과 안전사고에 따른 사후 처분 위주의 정책이 여객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점을 감안, 현장에서 운수종사자들과 대화하고 안내를 통한 예방 위주의 현장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서는 차고지에서 대기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시내버스 승차 거부, 승강장 통과 불친절 등 주요 민원사항과 급출발, 급정거로 인한 차내 안전사고 예방방 등을 안내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들을 예정이다.

시는 친절하고 안전한 시내버스 이미지 제고를 통해 2019 세계수영선수권 성공 개최와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순차적으로 22개 차고지와 회차지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장애인 여행지원 문화해설사 10명 양성

광주 주요 관광지를 찾는 장애인의 여행을 돕는 전문 문화관광해설사가 양성된다. 광주시는 20일 “장애인의 여행 편의와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예산으로 장애인 여행지원 전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성교육은 지난 17일 시작해 4개월간 기존 광주 문화관광해설사 중 1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여행 지원 전문 문화관광해설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과

장은 장애의 이해와 의사소통, 장애인 해설안내 기법,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등 4개 분야 총 50시간으로 관광지에서 장애인 유형에 따라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 위탁기관인 (사)광주관광발전연구원(이사장 김혜영)은 효과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관광 협력을 위해 관광수업장애인복지관과 업무협약을 하고 문화·인권도시 광주에서 장애인의 편의 증

진을 위해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모델화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을 수료한 장애인 여행지원 전문해설사는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내년부터 장애인복지기관 등과 연계해 본격적으로 전문 해설 활동을 하게 된다.

김용승 시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장애인 여행지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을 통해 차별 없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민속박물관 ‘역사문화산책’ 초등생 모집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역사문화산책’(이하 ‘역사문화산책’)을 8월8일부터 4일간 운영한다.

역사문화산책은 참가자 눈높이에 맞춰 저학년(1~3학년)은 8월8일부터 이틀간, 고학년(4~6학년)은 8월10일부터 이틀간으로 2회로 나눠 진행된다. 첫째 날에는 호남인물을 통해 광주의 역사를 탐구하는 이론수업과 ‘일필휘지’의 명성과 전통을

지닌 광주의 명물인 진다리붓을 만들며 광주문화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날에는 먼저 옛 선비들이 공부할 때 손에서 놓지 않았던 서책을 한지를 이용해 전통기법으로 만들어본다. 마지막 시간에는 조상들이 어떤 놀이를 하며 여름을 보냈는지 전통놀이를 배우고 체험해 본다.

가족을 동반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재료비는 어린이 1인당 2만

원이다. 참가 신청은 24일부터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k.kr)소통·참여>온라인예약신청>통합예약신청에서 하면 된다. 기수별 25팀(50명)씩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올해 역사문화산책에서는 호남인물을 통해 본 광주의 역사, 광주의 명물인 진다리붓 만들기 등을 통해 지역의 전통문화를 깊이 있게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http://gjfm.gwangju.go.kr 문의 062-613-5367.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 여름방학 감차 운행

배차 간격 2~5분 늘어나

광주지역 시내버스가 여름방학 기간 감차 운행된다.

광주시는 20일 “여름방학 기간 에너지 절약과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수입 감소와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재정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8월20일까지 28일간 학생 승객이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평일기준 52개 노선에서 97대(9.8%)를 줄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배차 간격은 운행 대수가 많은 간선노선은 2~4분, 운행 대수가 적은 지선노선은 3~5분 정도 평소보다 늘어나게 된

다. 시내버스 감차운행에 따른 노선별 시간표는 광주시 홈페이지 ‘시내버스노선(광주광역시버스운행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급 학교의 방학으로 버스 주요 이용 승객인 학생들의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비교적 운행대수가 많은 간선노선을 중심으로 감차한다”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집중 배차해 버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시내버스 운행은 999대, 101개 노선에서 하루 9371회 운행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

광주도시철도공사 ‘에너지 위너상’ 수상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김성호)는 20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소비자시민모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한 ‘제20회 에너지 위너상’을 수상했다. (사진) 이번 수상은 공사가 중앙정부와 시민단체 모두로부터 에너지 관리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수상자 중 공기업은 공사가 유일하다.

공사는 그동안 에너지 융복합 고효율 기기 도입과 역사내 LED조명 다량시스템 설치 등 강력한 에너지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지난 해 온실가스 2,089t이산화탄소, 전력사용량 15%를 감축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약 6억3000만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다.

또 전국 지자체 최초로 회생 인버터 시스템 설치로 최대수요전력 관리, 역사내 ‘저탄소 녹색환경 전시관’ 조성, 열악한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낡은 전기 배선을 정리 및 고효율 LED 교체 등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범시민 에너지 공감대를 불러일으킨 점도 큰 호응을 받았다.

‘에너지 위너상’은 기업의 에너지효율



기술과 제품 개발을 격려하고 소비자의 에너지 고효율 제품선택을 권장하기 위해 고효율 에너지 제품과 모범적인 에너지 절약 활동기업에 대해 1997년부터 수여하고 있다. <사진=광주도시철도공사 제공>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사진=광주도시철도공사 제공>

광주도시공사 수영장·빙상장 특강반 모집

광주도시공사는 여름방학기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내수영장과 실내빙상장 특강반을 운영한다.

실내수영장은 주 중(월~목)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6개 반(480명), 주말 2개 반(60명)을 모집한다. 강습료는 주중(주4회) 12일 강습으로 4만2000원, 주말(주2회) 10일 강습으로 5만원이다.

실내빙상장은 유년부(7세 이상)부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스피드 스케이팅 11개반(165명), 레저 스케이팅 4개반(60명)을 모집하며 강습료는 10만5000원

터 14만원(스케이팅화 대여료 포함).

박문기 광주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반 수업을 통해 여름방학 동안 체력을 증진해 건강한 여름을 나고 건전한 여가를 보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여름방학 특별반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실내수영장(062-380-6800~6803), 실내빙상장(380-6880~6881)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호텔급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대형모텔
- 대지 573평 건물 685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전체 리모델링, 7월20일 오픈예정
- 연수원, 수련원, 요양원 등 기타시설 가능, 케이블카 운영시 대박!
- 시세/감정가 - 20억, 매매 - 17억 (유자 8억포함)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산수유/벚꽃/매화축제, 여름휴가, 등산객 등 성수기철(5개월)영업으로 순수익 3억 가능!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관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3605-5000